

〈5월 16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사시헌공 (법요집 참조)
 - 2부 - 법회
 - 주 제 : 연등의 참 뜻
 - 법 사 : 교법사 진우스님
- 오늘의 찬불가 ♪ ‘보현행원’ 법요집 p.53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5.23(토)	봉축 특별기도	진우스님 (교법사)
5.25(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5.30(토)	인지치료명상	인경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 봉축 특별 기도 🌸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봉축 특별 기도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기도가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 교법사 진우스님
 5월 23일(토) 10시, 정각원 법당
 *23일 토요일 법회는 기도불공만 봉행

《봉축법요식 식순안내》

불기 2559년 5월 25일(월) 8시30분~ 정각원 법당
 금년부터는 봉축법요를 오전 8시30분에 봉행합니다

- | | |
|---------------------|-------------------|
| 〈1부〉 08:30~10:00 | 14. 사홍서원 |
| 1. 삼귀의례 | 15. 공지사향 |
| 2. 반야심경 | |
| 3. 찬 불 가 | 〈2부〉 10:10~11:00 |
| 4. 육법공양 | • 봉축공연 • |
| 5. 헌향, 관불 | - 성악가 허철영 |
| 6. 봉축법어 -이사장일면큰스님 | - 가야금병창 |
| 7. 봉 축 사 -총장 보광스님 | - 신당5동어린이집 축하공연 |
| 8. 축 사 | - 정각원 합창단 |
| 9. 발 원 문 -정인악 신도회장 | ※점심공양 11:30~12:30 |
| 10. 청 법 가 | • 상록원 2층 식당 |
| 11. 봉축법문 -정각원장 해주스님 | |
| 12. 정각원 합창단 축가 | 〈3부〉 18:00 |
| 13. 정 근(신도 관욕불) | • 저녁예불, 탑돌이 |

5월25일(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
육법공양에 동참해 주세요!

수행을 뜻하는 꽃, 해탈을 의미하는 향,
 지혜를 상징하는 등, 깨달음을 상징하는 과일
 기쁨과 환희를 상징하는 쌀, 부처님 법문의 정량함을 뜻하는 차

봉축법요 봉행시 직접 육법공양을 올리실
 불자님께서는 정각원 신도회로 문의해주세요.

☎ 신도회 총무 일현 010-9142-4282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권선

- 동국109발전등 : 109만원 이상
- 동국인재등 : 50만원 이상
- 소원성취등 : 30만원 이상
- 가족행복등 : 10만원 이상
- 영가등 : 10만원 이상

정각원 행정지원실 ☎ 02)2260-3016~9

보시동참

🌸 5월 11일 불전 공양 🌸

₩1,219,000원

해주스님, 법타스님, 마가스님, 강은희, 고목훈, 권혁채,
 김기현, 김동연, 김시현, 김원욱, 남창강, 박가희, 박사임,
 박성진, 박영순, 박영태, 변형하, 성창기, 안대준, 양은영,
 원서준, 윤병남, 윤호문, 이기형, 이봉자, 이성부, 이수준,
 이인주, 최선자, 한영욱, 홍동욱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1,394,800원

법사비, 토요일 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인등 보시

권경자, 이은국, 이은숙, 이지은, 조영기

공양 보시

- ❖ 불단 떡 : 김나연
- ❖ 대중공양 : 수미정사, 동백회
- ❖ 불단 과일 : 강동진, 정각원 신도회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동참 바랍니다^^

오늘 공양장소는 변경되어
 그루터기 식당(경영관 지하1층)입니다!

연등의 참 뜻

교법사 진우스님

불교성전(218쪽) 초기경전, 제6장 전생에 쌓은 수행.

2. 가난한 여인의 등불

사뻐티에 한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여인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집저집 다니면서 밥을 빌어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어느 날 온 성안이 떠들썩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프라세나짓왕은 석 달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옷과 음식과 침구와 약을 공양을 하고 오늘 밤에는 또 수만 개의 등불을 켜 연등회(燃燈)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성안이 이렇게 북적거립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생각했다. ‘프라세나짓왕은 많은 복을 짓는구나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나도 등불을 하나 켜서 부처님께 공양을 해야겠는데.’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겨우 동전 두 닢을 빌어 기름집으로 갔다. 기름집 주인은 가난한 여인을 보고 기름을 구해 어디 쓰려느냐고 물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뵈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 부처님을 뵈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나는 가난해 아무것도 공양할 것이 없으니 등불이라도 하나 켜 부처님께 공양할까 합니다.”

주인은 여인의 말에 감동하여 기름을 곱절이나 주었다. 여인은 그 기름으로 불을 켜서 부처님께서 다니시는 길목을 밝히면서 속으로 빌기를 ‘보잘 것 없는 등불이지만 이 공덕으로 내생에는 나도 부처님이 되어 지이다’라고 하였다.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다 꺼졌으나 그 등불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등불이 다 꺼지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주무시지 않을 것이므로 아난다는 손으로 불을 끄려 하였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다. 가사자락으로, 또는 부채로 끄려 하였으나 그래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고 아난다에게 말씀을 하셨다.

“아난다, 부질없이 애쓰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의 넓고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켜진 등불이다. 그러니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불의 공덕으로 그 여인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成佛)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프라세나짓왕은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었다.

“부처님. 저는 석 달 동안이니 부처님과 스님들께 큰 보시를 하고 수천 개의 등불을 켜습니다. 저에게도 미래의 수기를 주십시오.” 부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불도란 그 뜻이 매우 깊어 헤아리기 어렵고 알기 어려우니 깨치기도 어렵소. 그것은 하나의 보시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백천의 보시로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소. 그러므로 불도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로 보시하여 복을 짓고, 좋은 벗을 사귀어 많이 배우며 스스로 겸손하여 남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뒷날에는 반드시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요.” 왕은 속으로 부끄러워하면서 물러갔다.

눈앞의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오든 광명을!
- 유하 -

〈심봉사 눈 뜨는 대목〉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나 알아보아라
심봉사가 처자말을 듣더니만은 먼눈에서 눈물이 푹푹 떨어지며
예 소맹인 아뢰리다 예 소맹인 아뢰리다
소맹이 사육기는 황주 도화동이 고토 읍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정월달의 산후달로 상처허고 어미 잃은 딸자식을 강보에 싸서 안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동냥젖을 얻어먹여 겨우겨우 길러내여 15세가 되었던니
이름은 청이 읍고 효행이 출천허여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석의 몸이 팔려
제수로 죽은 지가 우금 삼년이나 되었소
눈도 뜨지 못하옵고 자식만 팔아 먹은 놈을 살려 두오 쓸테 있소 당장에 목숨을 끊어 주오

심향후 거동봐라 이 말이 지던마던 사호주렴을 거들쳐 버리고
버선발로 우루루루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심봉사 깜작 놀라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독녀 외딸하나 물에 빠져 죽은지가 우금 삼년인디 이것이 웬말이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인당수 풍랑중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사 여기 왔소
어서어서 눈을 떠서 소녀를 보옵소서
심봉사가 이말을 듣더니 어쩔줄을 모르는데

아니 내 딸이라니 아니 내 딸이라니
내가 죽어 수궁천리를 들어 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구느냐
이것이 참말이냐 죽고 없난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말인고 내 딸이면 어디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재
아이고 갑갑하여라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자
눈을 꿈적 꿈적 꿈적 꿈적꿈적 꿈적이이더니만은 그저 두 눈을 번쩍 딱 떴구나